

내 인생의 블로그 출판2.0

이노 마케터가 블로그를 만났을 때

미네르바 통근거울 브이코아 미션 마케터 유리성

KoolmAgician THE 블로그 : 새로운 세상을 연다 엉뚱이

블로그기반 출판 프로젝트

포토그래피 서버기반 컨설팅 블로그로 성공하라 도메인 구입하기 WE N 블로그 네트워크 포스팅 Steve Park

2009년 살아남다

링크나우 트랙백 지식경영 프로젝트 관리 블로그?!

블로그, 세상을 바꾼다

블로그 시크릿 : 파워블로거가 되는 1% 비밀 다음 아고라 바비 아웃소싱 티스토리 이코스모스 블로그클럽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 일상을 꽃피우다

블로그를 통한 응원 문화의 확산 붉은악마 잇힝 Yeon

### 집단지성과 협업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블로그포스팅북!

디지털기동력과 상상력으로 무장한 블로거들이 책쓰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다. 이 책은 생생한 블로그운영노하우와 최신 트렌드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와 저자간의 온라인네트워킹을 지원하며, 평범한 개인 누구나 블로깅을 하고 자신의 책을 출판하도록 안내하는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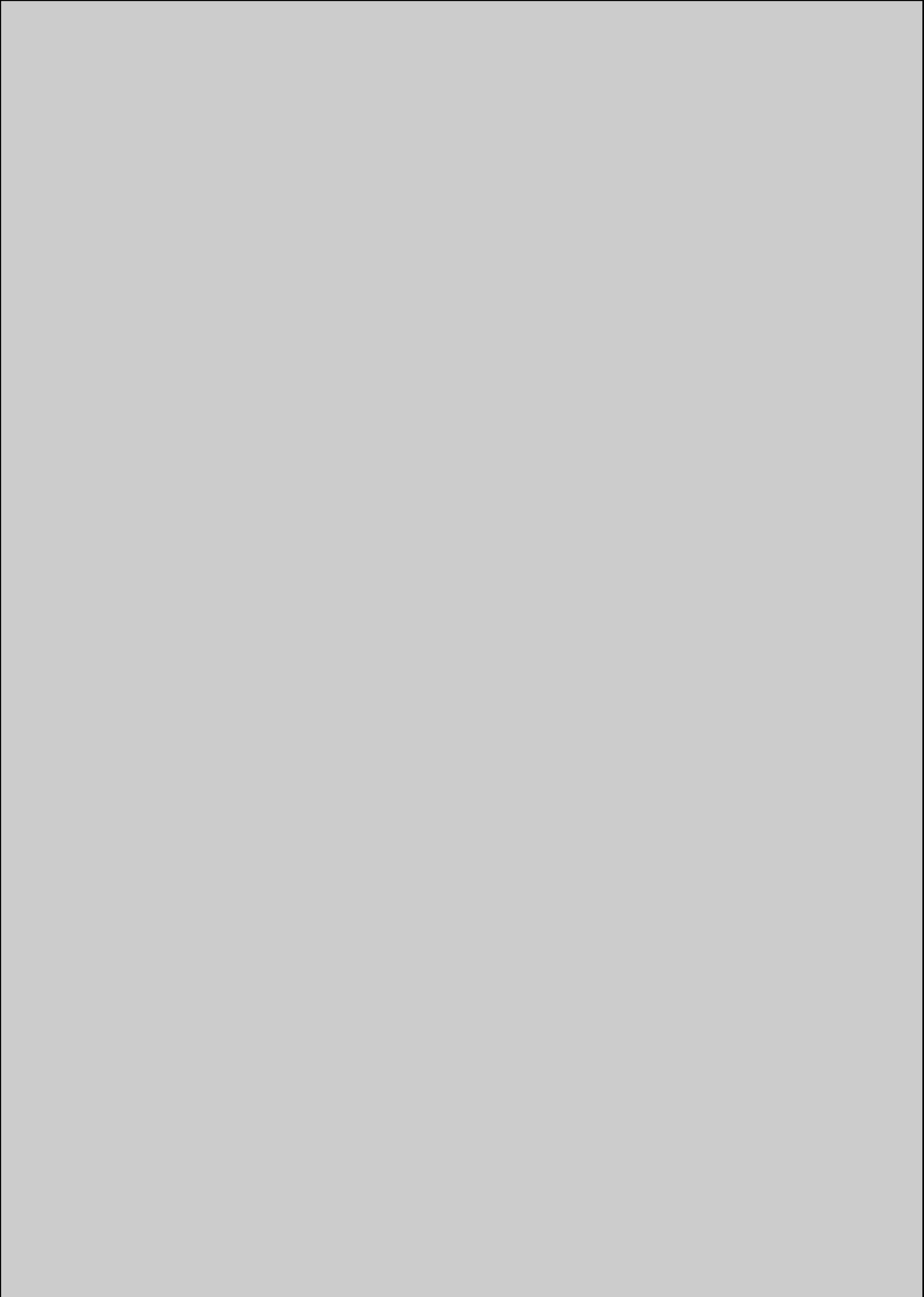
### 대세는 블로그이다!

지식경제기반 사회에서 자기PR과 인맥구축의 최적 수단으로 블로그가 각광받고 있다. 육아, 학습, 정치, 예술, 재테크, 여행,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파워블로거가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신문방송 등 기존 미디어의 권력이 웹 2.0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블로그 초보자부터 고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필진들이 의기투합하여 새해 한 달만에 출간에 성공하였다. 출판에 관심 있는 1인기업가, 전문직 종사자, 작가, 일반인, 주부, 대학생 등 독자들은 이 책에서 블로그콘텐츠기반 출판이라는 값진 실험을 간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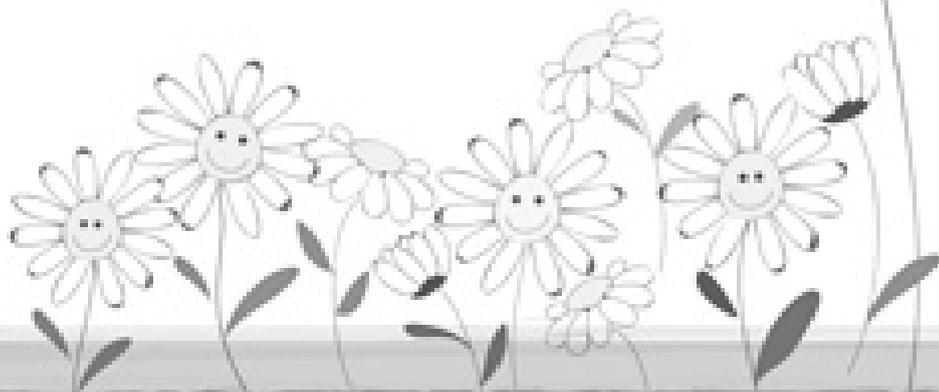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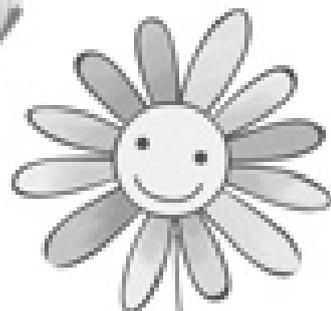
# 2009 블로그로 살아나다

무엇보다  
가게



30인이 말하는 블로그는 이런 것이다  
도서출판 Blogos.

이 책은 500권의 한정판입니다.  
이 번호는 이책만의 고유번호입니다.



블로그기반 출판프로젝트

## 2009년 블로그로 살아남다

1판 1쇄 인쇄 2009년 1월 22일

1판 1쇄 발행 2009년 1월 31일

지은이 : 블로거 ~인

펴낸이 : 강영미

편 집 : 문석규, 남유정

마케팅 : 박안나, 송정훈, 박진우, 김재훈, 이강석

디자인 : 조정훈, 김유진

인 쇄 : 신우디엔피

펴낸곳 : 블로그스

등 록 : 제 318-2009-00003호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 순복음810

전 화 : 070-7593-1193

팩 스 : 0505-321-3219

이메일 : ppappi@gmail.com

ISBN : 978-89-962112-0-4 13320

\*값은 책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은 블로거 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집단지성과 협업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v-core.kr 출판사업부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블로그 출판2.0

이노 마케터가 블로그를 만났을 때

미네르바 통근거울 브이코아 미션 마케터 유리섬

THE 블로그 : 새로운 세상을 연다

KoolmAgician 엉뚱이

블로그기반 출판 프로젝트

포토그래피 블로그로 성공하라 서버기반 컨설팅

네트워크 포스팅 도메인 구입하기 WE N 블로그

2009년 Steve Park 살아남다

링크나우 블로그로 이러닝 블로그?! 트랙백 지식경영 프로젝트 관리

블로그, 세상을 바꾼다

블로그 시크릿 : 파워블로거가 되는 1% 비밀 다음 아고라 바비 아웃소싱 티스토리 이코스모스 바블러클럽

구글 애플리케이션 블로그, 일상을 꽃피우다

블로그를 통한 응원 문화의 확산 붉은악마 잇힝 Yeon

# 격려사: **나다음과 너다음의 절정 체험기**



인류의 역사는 자기다움을 향한 투쟁의 역사다. 자기다워진다는 것, 이것은 만인의 목표점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혈통적인 정치독점을 거부하고 정치 민주화를 위해 투신해 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한, 정치적인 자기표현이야말로 자기다움을 위한 첫째 과제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가 진척됐다고 해도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다움을 실현하기 어렵다. 지금도 경제 민주화를 위한, 소리 없는 총성은 계속되고 있다. 누구든지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경제 민주화는 자기다움을 위한 둘째 과제다.

셋째 과제는 인격 민주화다. 너와 나의 인격은 대등하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러려면 자기표현의 수단이 독과점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인격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자기표현 수단이 바로 블로그이지 않겠는가? 누구나 제왕처럼, 대제사장처럼 자기 자신을 블로그로 드러낼 수 있다. 블로그는 자기다움을 향한, 가장 최신의 최강 수단임에 틀림없다. 블로그를 통한 자기다움의 분화작용은 샘물처럼, 강물처럼, 마침내 바닷물처럼 차서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나 자기다움의 분화가 전부는 아니다.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자기다움은 교만과 고독으로 끝나고 만다. 너다음들에게 포위된 나다음이 진정한 자기다움이다. 분화와 차별화와 개인화의 자기다움은 소통과 협력과 상생의 사회다움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된다.

이 책의 각 저자는 블로거라는 자기표현 수단의 절정을 통해 자기만의 고유한 자기다움을 과시하고 있다. 각자의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영역이 다르다. 그렇기에 다 자기다움의 황제이고 교황이다. 그러면서도 너다움을 기꺼이 인정하며 너다음들과 손잡는다. 자기다움과 사회다움이 함께 만나며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이 책의 각 저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짧고 강하게 표현된, 자기다움의 글을 또한 vcore.kr의 허브 블로그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상생함으로써 나다움의 가치와 너다움의 가치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저술뿐만 아니라 편집, 인쇄, 출판, 유통의 전체 과정이 블로그 기반의 소통, 협력, 상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한 권의 책에 자기다움은 물론 사회다움까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블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출판2.0 시대를 우리는 더욱 힘차게 앞당기며 널리 퍼뜨릴 것이다. 이것을 통해 나의 실현, 너의 실현, 그리고 사회의 실현이 아주 세련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어려워진다는 2009년, 그러나 블로그 기반의 출판2.0으로 함께 생존하고 번성하자. 더 나아가 자기다움과 사회다움의 또 다른 실현수단들도 창조하자.

<김종춘 코아인재발전소 대표>

## 추천사: 그대를 이 안에서 만납니다



저희는 지금 어쩌면 힘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손에 쥐어지는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줍은 자부심으로 감히 책문화2.0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을 통해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이 꼭 책을 만드는 일을 하시고 계시거나 블로그를 하고 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진화해가는 마디의 소중한 날을 기억하고 싶은 당신이 새로 오는 날들의 징표로 간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왜 이 책을 드리면서 왜 이리 기뻐할까요^^?

책이 세상에 나오기 한달 전 온라인의 한 귀퉁이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책 관련된 작은 사고 하나 치자구요. 서로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적은 자원과 리스크로 자신의 분야와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고 각자의 최선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한지 보자는 거였죠.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무언 중에 누군가 희생되는 것은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최소한 이 책에 참여한 사람만큼의 분야별 블로거 친구를 만나시게 됩니다. 책 안에 담긴 그 이상의 콘텐츠로 연결되게 되시구요. 새로운 가치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즐겁게 나눌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십니다. 그리고 일상 속의 2.0 문화가 시작된 징표를 안고 많은 이들과 깊은 대화를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책과 온라인을 잇는 숫자 하나로 당신에게 꼭 맞는 책이 되는 것도 시도해봅니다. 과거의 책들을 통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강요되는 메시지가 아닌 다양성의 인정과 포용을 함께 느끼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길을 통해 저희는 이 책을 가진 당신을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만날 것입니다. 책마다 담긴 고유번호는 책의 한계와 시장을 핑계로 당신을 더 이상 불특정 다수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희에게는 지금 오직 당신만 소중한합니다. 그 작은 웃음 하나로 작지만 꾸준한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선하다고 믿는 저희의 특별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자신의 사진과 태그와 연락처를 투명하게 엮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글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출처 포스트 주소를 담았습니다. 책에 있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분량의 더 많은 저희가 소중히 여기는 글들을 만나시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기획에서 당신 손에 쥐어지기까지 모든 부분이 참여, 공유, 개방, 집단지성과 협업 속에서 만들어졌답니다. 세상의 변화가 어마

어마한 속도로 쏟아져 내리는 속에서 한 획에 폭포의 단면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모두 함께 하루하루를 정성껏 서둘렀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얻어진 수많은 관계와 우정으로 저희는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서로 모순으로 보여도 기쁘게 답았습니다. 연인에게 자신의 기쁨도 슬픔도 모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실은 모순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로 우아하게 살아남는 것은 조회수 올려서 몇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블로거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막다른 벽이라고 느낀 곳에서 한줄기 빛을 통해 새로운 대륙에 손잡고 나란히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순간을 함께 즐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선두로 만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고 모자라는 듯한 부분들은 진화를 위한 여유로 안아주세요.

자... 소중한 경험을 함께 시작하시죠...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

〈유영진 블로거클럽, 브이코아 대표지기〉

## 목차:

**Blogos**

### 테마1: 인생은 시작된다

---

01.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05
02.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07
03.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09
04.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12
05.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15
06.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19
07.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21

**Blogos**

### 테마2: 인생은 시작된다

---

01.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05
02.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07
03.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09
04.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12
05.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15
06.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19
07.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21
05.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30
06.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33
07.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35

## 테마3: 인생은 시작된다

---

01.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05
02.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07
03.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09
04.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12
05.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15
06.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19
07.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21

## 테마4: 인생은 시작된다

---

01.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05
02.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07
03.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09
04.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12
05.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15
06.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19
07.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21
05.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30
06.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33
07.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길 / 현웅재	35

# 팁: 이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 1. 블로그를 만들자.

- 1)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등등 원하는 곳에 블로그를 만든다.
- 2) 티스토리 초대장이 없으면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블로거에게 연락을 취한다.  
(‘2009 블로그로 살아남다’ 보고 연락을 드리는 건데, 초대장 한 장 달라고 부탁한다.)
- 3) 협박을 해도 상관은 안하겠다.

## 2. 파워 블로거와 친해지기

- 1) 관심 분야를 선정한다.
- 2) 그 분야의 파워 블로거의 주소를 알아낸다.
- 3) 트랙백, 댓글, 링크 등등 블로거와 친해지는 모든 일을 시도한다. (비굴해지지만 말자.)
- 4) 필요한 정보, 궁금한 내용 등 평소 알기 어려웠던 것을 맘껏 물어보며 오르기증을 느낀다.(난 변태가?)

## 3. 취업하는데 블로그를 이용한다.

- 1) 지루하고 똑같은 이력서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
- 2) 자신만의 매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멋진 블로그 주소 한 줄을 면접관에게 날리자.  
(면상에 날리면 면접에서 떨어진다)

## 4. 간지나는 블로그를 만들자.

- 1) 읽으면서 도움이 될만한 팁을 형광펜으로 크게 표시한다.
- 2) 팁을 이용해 간지 찰찰 흐르는 멋진 블로그로 재 탄생 시키자.
- 3) 일일 조회수 1만명을 찍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인으로 거듭나자.

## 5. 여자친구에게 블로그를 선물하자.

- 1) 그녀 아이디어된 블로그를 개설한다.
- 2) 만난 날마다 그 날 찍은 사진과 편지 형식의 글을 올린다.
- 3) 기념일만을 손꼽아 기다린다(100일, 여자 친구 생일, 여자 친구 월급 타는 날)

- 4) 기념일 전날 밤에 달랑 블로그 주소만 하나 날려보자!!
- 5) 당신의 사랑과 감동에 콧물 범벅이 된 그녀를 볼수 있다.

#### 6. 유명해지자.

- 1) 일단 이슈가 될 만한 주제나 인물을 선정한다.
  - 2) 신랄한 비판과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 3) 당신은 경찰에 수배되어 유명해진다.
- ex) 미네르바 (미네르바님 죄송합니다. 별 뜻은 없었습니다)

#### 7. 책도 한번 내보자.

- 1)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주제를 선정한다.  
ex) 왜 우리 집 장판 밑에는 이끼가 자라는지 연구해 본다.  
손톱 밑에 낀 때에 대한 철학적 연구
- 2) 그 주제에 대해 당신만의 4차원적인 사고를 맘껏 발휘한다.
- 3) 출판사 제의가 올 때 까지 기다린다.
- 4) 안 오면 자비를 털어 책을 낸다.

필진~

~필진

# 부록1 :용어해설: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정보의 공유와 창작물의 존중이라는 인터넷상의 양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인터넷상으로 저작물의 이용조건을 명시하는 표준약관이다. 2001년 미국의 로렌스 레식 법학교수가 착안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블로그에 많이 쓰이는 CCL설정은 '저작자표시 필수, 상업적이용 허락하지 않음, 콘텐츠변경 허락하지 않음' 이다.



IT기술적으로 '불펌'을 원천방지하는 기능은 없으며, 창작활동 촉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강력하게 제한하기보다 '동일조건 변경허락'을 장려하자는 주장도 있다.

CCL해설 추천블로그: <http://virtuallaw.tistory.com/20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또는 Rich Site Summary)

웹 사이트간 뉴스 등 자료 교환 및 배급을 위해 개발된 XML기반의 프로토콜.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우 간단한 주소를 RSS 리더에 등록해 두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료가 교환되어 쉽게 변경된 내용을 읽을 수 있어 자주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들에서 많이 이용된다. 즉, 내 블로그의 업데이트 내용이나 이웃 블로그의 변경 내용이 즉시 보여진다. 보통 index.xml, index.rdf, rss.xml 등의 파일명을 가지며 아톰(Atom)과 함께 표준프로토콜 경쟁을 하고 있다.

##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친구, 선후배, 동료, 사업관계 등 인맥을 전문적으로 연결하여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발달된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싸이월드, 링크나우가, 해외에서는 My Space, Facebook이 대표적인 SNS 업체이며 웹2.0시대의 인터넷환경 속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링크나우 블로거클럽: <http://www.linknow.kr/group/blog>

## 메타블로그(Meta blog)

메타블로그란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블로그들을 모아주는 일종의 블로그 포털이다. 올블로그, 티스토리, 이올린, 한RSS, 믹시, 블로그코리아 등이 유명하며 자기 블로그의 RSS주소를 메타블로그에 등록하면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자동으로 메타블로그에 소개된다. 웹2.0시대 여론의 의제설정기능을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입소문 마케팅, 바이러스마케팅이라고도 하며 구매자에 의한 구전효과를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직접적인 광고보다 이미 상품과 서비스를 체험한 소비자의 평가를 더 신뢰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방식이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긍정적인 사용후기를 전파시키려하며, 부작용으로는 고객을 가장한 직원의 글, 또는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는 소비자의 글이 문제되기도 한다.

## 블로그스피어(Blogosphere)

Blog와 Sphere(분야, 구, 하늘), 즉 '블로그의 세계'라는 뜻의 합성어로, 개개인을 대표하는 블로그들의 총 집합으로부터 형성되는 거대한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블로거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사이버 문화공간으로 등장하였다.

## 위젯(Widget)

위젯은 PC의 바탕화면이나 블로그, 웹사이트, 휴대폰 등에 간단하게 삽입하여 시간, 날씨, 주가 등을 알려주는 기능프로그램이다. 각 포털사이트 등에서 다양한 디자인과 종류의 위젯이 제공되고 있으며 메도 리용량을 고려하여 취향대로 꾸밀 수 있다. 가젯이라고도 하며 최근에 기업들의 새로운 마케팅수단으로 웹전용 위젯이 인기를 끌고 있다.



D-day위젯 해설블로그: <http://www.webplantip.com/entry/디데이위젯다는법>

## 태그(Tag)

블로그나 웹상에서 많이 사용되거나 주제별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선정하여 만든 목록. 원래 꼬리표, 이름표를 뜻하는 말이나 검색이나 분류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출시켜놓은 단어들이다. 따라서 태그를 통해 블로거간 공통된 관심사항이나 활동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 珠箏絨병려妍? 콘텐츠 블로그 자기개발 역사 교육 언론티 리더십 여학·외국에 1인기업

## 템플릿(Template)

블로그나 사이트상의 기본 구성형식과 디자인양식을 지칭한다. 초보블로거의 경우 대부분 이미 만들어진 기본 템플릿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블로그를 꾸미는데 CG나 html언어에 능숙하면 개성있는 스타일로 제작할 수 있다. 단, 반드시 복잡하고 화려한 템플릿이 좋은 것은 아니다.

## 트래픽(Traffic)

원래 어떤 네트워크시스템이나 통신장치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웹호스팅을 이용하는 블로그의 경우 하루 접속 데이터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과다하게 사용자가 몰릴 경우 접속이 차단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웹호스팅 업체를 선택시 일일 용량, 비용, 디스크용량, 안정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포털내 블로그는 별 제한은 없다..

## 포스팅(Posting)

원래 전기(轉記), 복사, 투고 등의 뜻이나, 인터넷상에 자신의 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올리는 행위나 게시물을 말한다. 따라서 블로그 포스팅(Blog Posting)은 블로그의 글(을 올리는 것)이다. 엔트리(Entry)와 같은 개념이다.

■ 이름 : 문석규 ■ 닉 : 와룡선생  
■ 이메일 : msg4352@naver.com ■ 핸드폰 : 017-229-0476  
■ 네이트온 : msg4352@naver.com ■ 블로그 : blog.naver.com/msg4352  
■ 소속 / 하일 프리랜서(영어강사) ■ 태그 : 글로벌, HRD, 평화, 교육, 문화콘텐츠

## 에필로그: 이 책의 한달 동안의 뱃속이야기



인류의 역사는 자기다움을 향한 투쟁의 역사다. 자기다워진다는 것, 이것은 만인의 목표점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혈통적인 정치독점을 거부하고 정치 민주화를 위해 투신해 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한, 정치적인 자기표현이야말로 자기다움을 위한 첫째 과제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가 진척됐다고 해도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다움을 실현하기 어렵다. 지금도 경제 민주화를 위한, 소리 없는 총성은 계속되고 있다. 누구든지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경제 민주화는 자기다움을 위한 둘째 과제다.

셋째 과제는 인격 민주화다. 너와 나의 인격은 대등하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러려면 자기표현의 수단이 독과점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인격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자기표현 수단이 바로 블로그이지 않겠는가? 누구나 제왕처럼, 대제사장처럼 자기 자신을 블로그로 드러낼 수 있다. 블로그는 자기다움을 향한, 가장 최신의 최강 수단임에 틀림없다. 블로그를 통한 자기다움의 분화작용은 샘물처럼, 강물처럼, 마침내 바닷물처럼 차서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나 자기다움의 분화가 전부는 아니다.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자기다움은 교만과 고독으로 끝나고 만다. 너다움들에게 포위된 나다움이 진정한 자기다움이다. 분화와 차별화와 개인화의 자기다움은 소통과 협력과 상생의 사회다움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된다.

이 책의 각 저자는 블로거라는 자기표현 수단의 절정을 통해 자기만의 고유한 자기다움을 과시하고 있다. 각자의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영역이 다르다. 그렇기에 다 자기다움의 황제이고 교황이다. 그러면서도 너다움을 기꺼이 인정하며 너다움들과 손잡는다. 자기다움과 사회다움이 함께 만나며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이 책의 각 저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짧고 강하게 표현된, 자기다움의 글을 또한 vcore.kr의 허브 블로그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상생함으로써 나다움의 가치와 너다움의 가치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저술뿐만 아니라 편집, 인쇄, 출판, 유통의 전체 과정이 블로그 기반의 소통, 협력, 상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한 권의 책에 자기다움은 물론 사회다움까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블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출판2.0 시대를 우리는 더욱 힘차게 앞당기며 널리 퍼뜨릴 것이다. 이것을 통해 나의 실현, 너의 실현, 그리고 사회의 실현이 아주 세련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어려워진다는 2009년, 그러나 블로그 기반의 출판2.0으로 함께 생존하고 번성하자. 더 나아가 자기다움과 사회다움의 또 다른 실현수단들도 창조하자.

〈강영미 2009년 블로그로 살아남다 최초 제안자〉

# 디자인후기: 2009 블로그로 우아하게...



김유진 :아모레퍼시픽 디자인팀 specialist(과장) /홍익대 학교 금속조형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7년간 기업의 디자이너로 수 많은 제품(라네즈 슬라이딩 팩트 시즌2, 마몽드 파우더팩트, 해피바스, 러 등)을 디자인 하였습니다. 블로그 주소 : <http://design-marketer.tistory.com>

### [디자인 컨셉]

- 30인의 블로거가 말하는 블로그에 대한 생각들.
- 블로그를 쉽게 접하고 싶은 사람들의 눈길을 잡는 디자인.
- 너무 전문적인 느낌은 들지 않도록 함.(전문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면 IT 또는 경영 전문 서적이란 인상을 줌)
- Target : 2~30대

조금은 가볍게 시집이나 수필처럼 접근하였습니다. 일기를 쓰듯 블로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흥미를 더해 주기 위한 감성적인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블로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운데 나는 정작 그렇게 못하겠다. 컴퓨터와는 본래 안 친한데다가 웹검색도 잘 못할 뿐더러 웹쇼핑 마저도 별로 안 좋아한다. 아마도 그 분야에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다. 그런 나에게 블로그를 주제로 하는 책 디자인을 하라고 신랑(필진 현웅재님)이 어명을 내렸다. 기업의 8년차 디자이너인 나는 신제품 런칭을 앞두고 있는 터라 회사 업무도 바쁘고 주말엔 5개월된 딸아이를 돌보아야 할 뿐더러 집안 살림에도 신경 써야 해서 너무너무 바쁘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다.

출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30인의 필진을 만나보았다더라면 컨셉 설정을 명확히 할 수 있었겠지만, 그 30인 중에 한명인 신랑을 아는 것이 전부인데다가 블로거라면 화장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하고 귀찮아 하는 터라 디자인 컨셉 설정이 쉽지 않았다.

먼저 블로거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기로 했다. 나처럼 블로그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나 블로그를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으로 쉽게 시집이나 수필집을 읽듯 이 책을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감성적인 컨셉으로 방향을 잡았다. 꽃밭에서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 예쁜 꽃 한송이가 우아하게 우뚝 피어나는 그런 장면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블로그를 통해서 꽃처럼 우아하게 피어날 수 있음을 표현하였다.

보통 블로그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을 천성이거나 아니면 결혼,아기의 탄생 등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이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2~30대의 젊은이들로서 본인의 소소한 일상이나 독창적인 정보를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타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 접할 때 조금 더 쉽게 다가 설 수 있도록 감성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디자인 컨셉을 설정했던 것이다. 이 점은 같은 주제로 출간되어 판매되고 있는 다른 도서들과의 차별화 전략이기도 했다.

박빙의 승부가 되었던 이번 표지디자인 공모전에서 선택된 지금의 디자인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접근한 면이 돋보인다. 블로그 관리를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들에게는 블로그에서 많이 사용하는 태그 형식이라 익숙하고, 블로그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적잖은 호기심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웹에서 사용하는 태그 형식의 그래픽 언어와 그 배열이 독자에게 정보를 주는 형식이고 주황색의 바탕이 주목성이 있어 눈에 잘 띄고 또 호기심을 유발해 디자인적인 면에서 우수하다.

30인의 필진에게 갈채를 보낸다. 모두들 본업이 있을 터인데 출판을 기획하고, 4페이지의 원고를 쓰고, 또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출판을 강행한 점에 그들 모두의 열정이 묻어난다. 자신의 글이 실리고 사진과 이름이 담긴 책을 한권 발행한 것으로 2009년을 시작했으니 그 무엇보다 뿌듯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나도 블로그 관리에 흥미를 느껴 '디자이너 마케터 되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나같은 문외한이 블로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 필진+편집후기:

이번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웹2.0의 넓은 세계와 출판프로세스를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집단지성과 협업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나부터 참여하고 행동해야 한걸음씩 나아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문석규>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형태로 책이 출간되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엔젤이란 이름으로 많이 부족했지만, 저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들 마무리까지 힘내시고, 출간일날 비요 <신성재>

모두가 2.0을 말할 때, 우리는 실행했습니다.^.\* 그 속에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고요 참여하신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권지연>

최초로 블로거들 간에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블로거 유니온 출판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출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의장>

30일만에 40명의 블로거가 500부의 책을 만들어낸 출판 2.0 프로젝트. "블로거", "참여" "출판"이라는 키워드로 2.0을 실감한 역사이팅한 경험이었습니다. 글을 꼴찌로 내서 죄송합니다 ~ :-)<박안나>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 바로 출판2.0 프로젝트!! 기존의 출판1.0을 뛰어넘는 실험과 도전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진우>

완전 초스피드 번개 프로젝트였습니다. 블로그기반 출판, 힘들고 바쁜 중에도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박형주>

참으로 오랫동안 느껴본 설레임과 긴장감이었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어서 많은 참여는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번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Love 李靖!! <황성훈>

블로그에서 즐겁게 Play하고, Talk하고, Love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을 위하여 오늘도 포스팅&포스팅!! ^^; <김성구>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 놓았다는 생각입니다.

스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6개월 된 딸과 아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현웅재>

출판을 협업으로 이끄는 이정표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여 좋은 경험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에는 좀더 전문화된 미래를 앞서나가는 책출판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김효신>

정말 신선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두번째 책은 언제 만들어요? ㅋ~ <김재훈>

편집은 화룡점정이라고 합니다.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요. 편집과 출판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이재수>

## 비하인드스토리:

작년 12월말 '블로거들끼리 모여 책 한번 내볼까요?'라는 한 블로거의 도발적인 제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40여분의 참여신청 댓글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즉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고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메일, 블로그, 핸드폰, 메신저 등 모든 통신수단이 거미줄처럼 동원되어 필진들은 꼼짝없이 붙잡혔고 이윽고 차례로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후원금을 내고도 바쁜 사정으로 일정표를 못맞춰 받을 동동 구르는 전우들, 메뚜기같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빈틈을 메꾸는 용병들, 끊임없는 고민과 비전제시로 필진과 스태프를 지휘한 강영미 총사령관덕에 조그마한 그러나 쿨한 물건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달만에 온라인상으로 만난 개인들이 협업으로 출판사등록부터 원고작성, 편집, 디자인을 거쳐 정식 출간되었으니 가히 형식과 내용면에서 출판 2.0 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독자들은 저지들과 댓글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집단지성을 창조하고 일련번호를 간직한 500권의 책들은 인터넷에서 살아움직일 것입니다.

참여, 개방, 공유의 웹2.0 정신에 따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인 투표로 책제목과 북디자인을 선정하고 비용분담 및 역할분담을 수행하였습니다. 최종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책제목 후보들은 앞표지의 태그로 귀하게 쓰였으며, 수고해주신 디자이너 김유진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보다 공격적이고 기업가적 정신으로 판매부수를 높여잡아 시중에 유통, 홍보, 판매, 배송, 고객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비즈니스실전까지 가볼 수 있었다면 더 재미있었을텐데, 그만큼 매력있는 컨셉의 아이템이지만 자본투자와 물량공세형 마케팅이 여전히 필요한 출판계의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번 첫 '삼질'로 모두들 자신감과 경험을 얻었으니 2차, 3차 후속작이 벌써 기대됩니다. 혹시 나도 블로그 깨나 한다는 독자분, 같이 책 내보실래요? <문석규>



## 출판2.0 프로젝트명 '2009년 블로그로 살아남다'

Blogos는 블로그스피어의 출판2.0 허브를 자처합니다.

블로거의, 블로거에 의한, 블로거를 위한 출판지성과

참여, 공유, 개방의 출판철학- 이제 모든 블로그출판은 Blogos로 통합니다.

<http://www.blogos.kr>

The logo for Blogos, featuring the word "Blogos" in a bold, white, sans-serif font. The "B" is significantly larger and is enclosed within a solid black square. The remaining letters "logos" are positioned to the right of the square.